

프로젝트 Public Cell展

2002.11.15 ~ 12.7 갤러리 피쉬

새 대통령을 탄생시킨 이번 대선은 '미디어'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무장한 21세기의 유목민들은 미디어에 의존하되, 미디어가 일방적으로 뱉어내는 제한된 정보를 가려내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스스로 찾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과거 불과 채 얼마 되지 않은-에 미디어가 소수에게 정보와 권력을 집중시켰다면 지금의 미디어는 수평적 형태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고 있다.

<퍼블릭셀전>(온라인 전시 www.publiccell.org)은 미디어와 웹이라는 새로운 미술언어로 공공성과 개인의 문제를 바라보는 유비호(www.ryubiho.org)와 양아치의 공동 프로젝트다. 테크놀러지와 이미지의 조화가 이루어내는 몇 안되는 작가로 평가받는 유비호와 '중국로봇'(www.chinarobot.net)이라는 그룹을 통해 '넷 환경을 생산하는 개인 및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넷 문화를 생산하려는' 양아치-작가의 말에 따르면 양아치란 '나와 너의 정체성'을 의미한다가 함께 한 이번 전시는 미디어를 통해 '사회와 개인'을 고찰하려는 두 사람의 관심이 일치된 결과물이다.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인 퍼블릭(public)과 개인을 상징하는 셀(cell)을 조합한 전시제목 역시 대중으로서의 인간과 하나의 개체로서의 인간이 미디어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보여주겠다는 전시의 의도를 한눈에 보여준다. 물론 그들이 공통의 화두로 삼는 미디어를 바라보는 눈은 조금씩 다르다. 유비호에게 미디어는 정보를 싣고나르며 국가나 기업의 이데올로기를 개인에게 주입하는 도구이다. 이에 비해 양아치가 보라보는 미디어란-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본콘텐츠 제 공자가 비즈니스 환경에서 유도하는 공간에서 여전히 사적언어로 넷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전시내용을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유비호는 일견 미디어의 감성에 호소하는 듯이 보인다. 어두운 전시장을 분위기있게 적셔주는 무지갯빛 화면과 헤드폰을 통해 정감있는 라디오 DJ의 음성을 들을수 있는 <무지개>가 그것이다. 그러나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광고 카피처럼 현대인의 기호품이 되어버린 자동차 속에 모여있는, 그러나 어떤 관계성도 갖지않는 세사람을 360도 촬영하고, 그 이미지를 컴퓨터에 입력한 <괜찮아 (That's alright)>를 통해 그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파편화된 개인들의 사적(私的)인 공간을 수없이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냉정한' 면을 동시에 드러낸다.

낡은 텔레비전과 4대의 전축을 설치한 양아치의 작품역시 예사롭지 않다. 텔레비전 모니터에 그가 담아낸 영상은 요사이 심심찮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감시카메라를 웹과연결해 인터넷에서 보여주고, 그 영상을 다운로드한 것이다. 게다가 그는 영문도 모른 채 감시카메라에 노출된 그들을 공공세포, 무핵세포, 회색세포라는 자신의 논리로 분리해 내고야 만다. 아울러 함께 설치한 전축에서는 노암 촘스키의 '미디어의 역할', '대중 심리지배'등의 강연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미디어에 종속된 개인의 위치를 곰곰이 상기시킨다.

<퍼블릭셀전>은 미디어를 통해 공고히 지탱해오던 사회와 개인이라는 강직한 이분법적 이데올로기를 떨쳐내려는 시도로 보인다. 어떤 이는 자신의 상상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구현하며 내부로 파고드는 방식으로, 또 어떤 이는 미디어라는 외부적 환경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꿈을 형상화하고 있다. 오늘날 미디어는 정보를 조작, 은폐함으로써 대중을 관리하는 도구에서 대중을 보호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영상과 웹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유로이 유명하는 이 두사람의 꿈이 미디어에 종속된 인간이 미디어를 통제할 수 있는 주체로 부상한 시대의 변화를 놓치지 않으며 또 다른 이야기를 풀어놓기를 기다려본다.

월간미술 운동회 기자